

## 황성규 제2차관, “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” 강조 - 7일 안성휴게소 찾아 방역 주체로서 경각심 갖고 방역 총력 당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(서울방향)를 찾아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.
-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,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, 소독·환기 등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.
  - 이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, “휴게소는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이용객들이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”하다고 강조한 뒤,
  - “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1,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-19가 매우 엄중한 상황”이라며,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.
  - 아울러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 “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안심 휴게소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”을 강조하면서, 백신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한편, 이날 황 차관의 방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,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이뤄졌다.

2022. 1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